

교회 목표

신앙의 예배
천국일본 향상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아로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선근

제3회 전국목회자 세미나 십자가가 커질 때 진정한 부흥은 시작됩니다

21일부터 23일까지 은혜 중 마쳐
어긋난 목회관 부수고 사역자의 복음중심적 정체성 확인

제3회 전국목회자세미나가 끝났다. 예상보다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복음의 말씀은 매우 풍성했다. 참석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띤 질문과 대화를 통해 강사들과 충분히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들에게 이미 주신 복음의 특권을 온전히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중심성을 확고히 회복하는 것만이 진정한 부흥을 위한 열쇠라는 사실에 깊이 공감하였다. 알렌 해리스 목사는 목회자의 사역을 "성도들을 진정한 사역자로 양육하기 위한 트레이너"로 규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방으로 삼아 따라라고 하신 유일한 말씀의 상황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상황이었음을 상기시켰다. 스티브 월더스 교수는 제1강부터 제7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감동적으로 증거하면서 목회적 프로그램과 명목들의 등으로 대대시킴으로써 은총 시도를 한계를 예리하게 드러내었다(강의요약은 6면)。

한편,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도 교회의 많은 일꾼들이 진행과 안내, 간식담당과 식당봉사 등으로 헌신하여 참여한 목회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섬겨주었다. 총회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갱신되어가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행하며 회복됨으로 진정한 부흥의 물결이 한국교회를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2000년도 제1차 학습세례식

2000년도 제1차 학습세례식이 오늘 오후 관양에베시에 거행된다. 오늘, 21세기 첫 학습세례식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을 시작키로 다짐한 성도들은 학습자 70명, 세례자 52명, 유아세례자 32명, 입교자 52명, 그리고 개종자 3명 등 총 209명이다(2월 24일 기준).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성도들도 이들이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대의 흐름에 좌우됨이 없이 견고한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기도로 함께해야 하겠다.

동기 농어촌전도대 파송 4교구, 2월 29일~3월 1일

4교구는 2월 29일과 3월 1일 양일에 걸쳐 경기도 금촌에 소재한 금원교회와 그 지역에 농어촌 전도대를 파송한다. 이번에 파송되는 4교구 전도대는 이미용전도대와 연합하여 이미용사역을 통한 관계전도 및 축조전도 등의 사역을 펼칠 예정이다. 이 사역이 금원지역 복음화를 위한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요청된다.

김영대 선교사

르완다 '이웃사랑회' 중심 사역

새 사역지를 르완다로 정하고 현지 정착 중인 김영대 선교사는 '이웃사랑회'를 중심으로 초기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이웃사랑회는 1991년 한국인의 의해 설립되었으며 태극소, 진료소, 교아원 등을 운영하면서 난민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선교훈련 JLMTC, 3월 1일 기도원에서

교회학교와 학부모들의 관심 및 중·고등부 학생들의 많은 참여 기대

선교위원회는 단기선교를 중심으로 교회내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의 물결이 전 교회로 확산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후세대들을 선교적 인물들로 키워내는 일이 시급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선교훈련과정(JLMTC) 개설기로 하고 3월 1일 아래와 같이 일일 선교훈련을 실시한다. 이번에는 훈련받게 되는 청소년들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단기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얻게 되며, 이후 지속적인 선교훈련과정을 통해서 총회에서 인정하는 단기선교사 자격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총회의 성도들은 총회의 다음 세대들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에서 일하시는 홍익한 교회로 일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선교훈련에 적극 동참시키고 기도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일시: 2000년 3월 1일(수)

장소: 충현기도원

훈련내용: 성경적 선교신학(신구약) / 세계선교동향 및 선교종원과 / 국내내국인교과 사역 / 선교과 언어습득(LAMP) / 비교종교학(도슬렘) / 단기 평신도선교의 사역과 준비 / 선교역사

감사위원회, 상반기 정기감사 실시

- 대상기간: 1999년도 결산 및 2000년도 1월분 시산표
- 대상기관: 각 위원회내 신하 전부서 및 부속기관
(남녀 각 전도회 제외)
- 감사실시기간: 2월 ~ 3월중
- 감사실시장소: 선교관 404호

고등부 - 농어촌교회 어린이 초청수련회 2월 27일-3월 1일

고등부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남 통영, 거제 지역에 소재한 3개 교회 어린이 60여명을 초청하여 수련회를 실시한다. 지난해 7월 고등부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전사역을 펼쳤었는데, 그 사역이 지속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초청수련회를 계획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고등부는 이번에 초청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훈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신이 자라가는 지역에서 천국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미국교회 탐방

교회는 지난 1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서동성, 윤성철, 이정우 장로를 미국 시카고 지역 내의 무디 성경학교 및 부근 교회들로 파견하여 미국내 교회 및 교육시설들을 탐방하도록 하였다. 금번 탐방은 본교회 제2교육관 준공에 따라 선교회들의 건축물 시설과 교회 교육프로그램 등을 탐방하고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3일간의 장로들은 탐방결과를 기초로 제2교육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출하였다. 금번에 제출된 의견은 '당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제2교육관은 성도들의 교제와 활동을 위해 매우 실용성 있는 용도로 사용될 전망이다.

함께 읽기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천국일꾼 아브라함

복부수단 출신인 모하메드 살라 로마단 아브라함, 그가 총연교회의 후원으로 본격적인 신학수업을 받기 위해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으로 공부하던 간다. 김영대 선교사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집사로 안수받은 아브라함은 무슬림 가정에서 출생한 수단 정규관 장로종교인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후 직장인 군데에서 쫓겨났고, 그 후로는 신실한 자세로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 총회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장사 수단교회를 재건하고 수단복음화에 열광하고 같이 쓰여질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겠다.



김창인 목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요일 1:1-10)

“우리의 사قم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리라”

1.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행복자

전능하시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있을지라도” 하시는 말씀으로 우주 삼라만상을 질서 정연하고도 풍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섭리자이십니다. 오늘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넉넉하게 돌보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마지막을 보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영육간에 모자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2. 인간의 교만으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가장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인자 너무 좋으니라, 근심을 모르니라 교만한 마음이 생긴 모양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마귀가 꼭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인의로 먹되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생긴 하와에게 마귀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먹으라고 그랬나”라며 유혹을 했습니다. 너무 잘 살때에 교만한 마음 생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호트러져서 듣지 아니할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만 교제해야 될 하와가 악마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악마의 말을 듣고 나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데...” 교만한 마음은 유혹을 받고, 유혹을 받으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이 안보신다고 생각하고는 독마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도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하고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었으니 같이 있습니다. 같이 나니 숨었습니다. 벌칙한 인간이 하나님의 눈은 피하여 숨을 곳이 있었습니까? 체포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숨었으나 “이답이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음성에서 벌벌 떨면서 “여기 숨었습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먹었다고 한 그 실과는 너희가 먹었나?” 그놈 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되 되었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또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벌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라며 역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복을 받은 자라니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사귀지 못할 자를 사귀고, 사귀지 못할 자를 사귀면 그 말에 유혹을 받고, 그렇게 유혹을 받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기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숨어서 몰래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숨었다가 체포되니 핑계하게 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축출 명령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자 에덴동산에서 쫓겨 나니 날부터, 인간들은 인애와 축산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질병에 부딪히면서 자라야 했으며 좌악이

때문으로서 나그네 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심의 짐, 질병의 짐, 죽음에 대한 공포의 짐과 같은 무거운 짐만 진 것이 아니라 죄로 때문에 더러워져서 인간에게는 참된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심 속에서 죄를 범하며 살다가 죽을 때는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지옥 불이 기다리니 뜨거운 지옥 불 속에서 울고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영원한 고통이 인간들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인간들은 이처럼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교제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처참한 지경에 떨어진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때로는 육신을 쓰고 오셔서 영원 지옥에 갈 죄를 대신 책임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며 기도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 가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 오셔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게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라 평안이 옵니다. 성령님이 보호하신다 악마가 손을 못 댈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의 과거를 용서해 주셨고 나그네 생활 끝날 때까지 성령님을 보내시어 보호해 주시니 평안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지경은 하면 안 된다 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을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여라” 그 “이행” 하고 믿고 따라만 가면 인간 나그네 생활을 사는 동안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영육간에 필요한 것 때를 따라서 주십니다. “내 주된 영혼 만나로써 먹여 주시라” “너를 잘 미루아시고 주 너를 지키라”

교만함으로 어리석어서 악마와 교제하다가 악마의 말에 속아 돈에 욕심이 생겨서, 명예에 욕심이 생겨서, 이 모양 저 모양 욕심이 생겨서 범하였던 자와 이러한 자들은 그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큰 응징에 빠졌었습니다. 그 응징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겼으니 보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에 누구와 교제하시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예오니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돌리며 고생을 만나도 늘 찬송하면서 숨길 때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뭇가지가 뿌리의 진액을 받을 때에 삽니다. 나뭇가지가 뿌리의 진액을 받을 때에 잎이 됩니다. 나뭇가지가 뿌리의 진액을 받을 때에 꽃이 됩니다. 나뭇가지가 뿌리의 진액을 조금도 중간에 막힘 없이 받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4.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받는 복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무슨 복을 받게 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받는 복은 바로 평안입니다. 영생하게 되었으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의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라고 하면은 식구들은 갈빗대가 부러지는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앞에 보입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땅 위에서의 하루가 짧으면 황금보좌에 앉을 하늘나라에서의 하루가 더디게 됩니다. 거기서 다려 밀어서 자는 하룻밤보다 일동호택에서 자는 하룻밤이 훨씬 날랜데, 지옥 불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생명을 얻었으니 마음에 기쁨이 안으셨습니다.

5. 결론

충현의 성도들이여,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그 사랑 안에 살면 악마가 손을 못 대니 평안합니다. 영육간에 모자란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풍성하신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면 땅의 것도 100배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받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핍박을 견하여 받으시라”는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땅 위의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땅 위의 복을 받다가 어려움만 만나면 원망하는 못된 인간이 절대로 되지 맙시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복을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생도 달게 감당합시다. 그렇게 되면 천국의 상이 기다립니다. 고생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만 교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깨끗한 목적을 세우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명령대로 기도합니다. 땅 위의 썩어질 것, 불타버릴 것, 하나님께 매달을 것 다 끊어 버립니다. 교만한 욕심, 교만한 반역, 교만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과만 교제하면 어디서든지 영육간에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태양이 있는 곳에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육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할렐루야”로 마중 나가서 여러분의 머리예 면류관이 썩어지기를 붙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M**



김성관 목사

주님의 만찬

(눅 22:19-20)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돌아온 성탄의 기쁨

우리는 올해 들어서 1월 첫 주일을 성탄절 주일로 기념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첫 주일을 맞아 두번째 성탄절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살갑이 빠릅니다. 2000년도의 두 달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온갖 슬프고 가슴아픈 소식들, 절망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특별히 오늘과 같이 성탄절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하고 기쁨 따릅니다. 저의 심령은 주님을 향해 불타고 있고 그 마음에 솟아나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메시지는 주님의 만찬이 이렇게 단순했던 것만큼이나 단순합니다.

만찬에 초대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요14:2), 제자들과 함께 모여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만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한 영원한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첫 열두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있는 무덤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식탁으로 그의 친구들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자리에 모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인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찬의 식탁 앞에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친밀한 사랑을 가지면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는 실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으로 인해 안위를 맞습니다. 우리 가까스로 임재하시는 주님,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믿기로 작정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은혜를 가시적인 형태로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한 우리의 욕망이 채워

지는 곳도 이곳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우리 각자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불어 또한 우리들 서로를 향하여 연합하도록 만드는 거룩한 교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하심이 모든 참여하는 성도를 안에서 현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찬의 식탁에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

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의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시려는 기쁨의 제물이었습니다. 잘라진 맥과 부어진 포도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우리의 심령에 호소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망가졌고 부서지기 쉽고 고통과 외로움은 계속됩니다. 이 험난 인생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탄과 고통, 무거운 짐으로 부어진 우리 인생에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죄 가운데서 행하는 수치와 어둠의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19-20절). 이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가 아닙니까? 아멘.

화목케 하시는 은총

우리 주님의 위대한 사역이 우리 각자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각자가 하늘로부터 오신 구세주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우리를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단언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늘의 구원과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다시 내드리면서 섬깁니다. 그의 영 안에서 즐거워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고 친구와 화목하게 됩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진실 그 맥과 잔이 여러분을 위한 속죄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선포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행복과 거룩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지요! 우리는 같은 주님 앞에서 한 식탁에 둘러 앉습니다. 우리는 같은 잔을 함께 마십니다(마26:27).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이끌려 하나로 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강한 결속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됨이 야말로 온 세상에 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믿음과 기쁨, 그리고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밝게 불타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성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만의 특권

주님의 만찬은 단순한 식사이지만 그 안에는 부요한 축복이 가득합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와 소생케 하시는 힘, 그리고 그를 아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허여 우리 각자의 죄를 속하고 그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가 교통하며 누리는 행복과 거룩함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빛나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자들만이 이 아름다운 주님의 식탁에 초대됩니다. 아멘. ■

주님의 만찬은 단순한 식사이지만

그 안에는 부요한 축복이 가득합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와 소생케 하시는 힘,

그를 아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 특히 우리 각자의 죄를 속하신 그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가 교통하며

누리는 행복과 거룩함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빛나는 특권입니다.

게 해주는 이 성만찬보다 더 가까이, 더 강하게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힘과 기쁨을 주심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만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맥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맥과 포도주는 힘과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기쁨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는 영원한 원천이 바로 이 맥과 포도주요 상징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식탁 앞으로 나아올 때 우리는 그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진솔하신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열매와 열매를 맺어 그를 보지않 축복된 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를 위

우리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오직 그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불의함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으십니다.

맥과 잔을 받기 전에

이 시간 맥과 잔을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용서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경건한 영혼과 겸손히 엎드린 마음을 가지고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우리가 맥과 잔을 받을 때 슬픔과 사랑이 함께 뒤섞여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슬픔과 사랑이 함께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가시와 면류관을 그렇게 부요하게 만든 것은 아십니까? 잘라진 맥과 부어진 잔이 보여주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앞에서 물러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국내 외국인 선교부 우즈베키스탄 탐방

하나님은 한 영혼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다



1992년 구소련이 붕괴되어 각 민족국가로 분리 독립되었다. 사마르칸트가 수도인 대륙남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에도 이제 북쪽이 들어왔고 비로소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많은 근로자들이 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교회와 외국인선교부에 그들이 오게 된 동기는 다름과 같다. 멀리 수직이 심해지다니던 김관선님께서 문득 좀 가까운 곳에도 외국인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동대문을 탐색하던 중 우즈베키인들이 있다는 정보를 얻어 예매 찾아내 만나게 되었다. 처음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 어려웠으나 그들을 마침내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고, 주일마다 용인에 있는 또 다른 우즈베키인들을 위해 자동차를 직접 운행함으로써 외선부 우즈베키스탄팀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선교사에 의해 주님을 영접하여 온가국이 구원받았다고 한국에 돈벌러 왔지만 예수님이 더 좋아 충현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한국인 2세 태갈리나가 있었다. 그녀는 부모에게 배운 한국어 실력으로 처

음부터 통역할 수 있었고 힘들고 지친 일과 후 혼자서 전도까지 하는 신실한 참그리스도인이었다. 교사들과 더불어 심방사역에 열심을 다함으로써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우즈베키인 외선부가 등록된 지 6개월 정도 지난 현재 평균 60~70명이 출석하고 있다. 이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갈라디는 말한다.

설연휴 수련회 기간에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동두천의 한 우즈베키인 수련회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은혜받고 돌아가 다음 주일 30명이나 되는 우즈베키인들과 함께 나왔다. 또한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우즈베키인이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하자 불신자들이인 우즈베키인들 100여명이 교회에 참석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

대부분 김조, 안성, 의정부 등 먼 지역에서 힘든 업종에 종사하거나 일자리가 없는 이들은 서로 돕고자 자체적으로 연립하여 모임을 자주 갖는다고 한다. 타국에서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외선부 우즈베키스탄팀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다. 본국에서의 신앙이 비록 모



△통역하고 있는 한국인 2세 태갈리나

슬펍이었지만 성경을 읽고 신앙교육을 받아 가는 동안 점차 믿음의 성장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적 체험을 하는 이도 생겨났다. 친척의 기술이 있어 회사간 정식계약을 하고 한국에 온지 2년된 올라가는 작년 11월에 처음 나와 아직 미성숙하지만 그 믿음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하니 새로운 직장을 찾아주시더라는 그녀는 본래 성격이 활발하고 개방적인 탓인지 활짝 웃으며 동료들을 챙겨주는 등 성기는 자제로 집회 및 예배에 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정식명칭인 이 나라에서는 한국과 기호가 비슷하고 매년 3월 21일 '나우루스(설날)'라는 가장 큰 민족명절에 '우즈빠(불고기와 비스)'를 먹으며 춤과 노래로 즐긴다. 현 대통령이 이슬람 카리프인 우즈베크는 아직 정치가 불안정하고 경제발전이 부족한 단계이다. 종교는 대부분 회교도이지만 철저한 신봉자들은 아닌 반면 오히려 민족주의가 강하고, 순박하지만 특유의 정서가 강렬하였다. 그 나라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은 많은 편이고 주로 한국인이라고 한다. 언어는 고유언어인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성도들은 낯선 외국인 지체들을 만나면 주의 사랑으로 웃으며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들 우즈베키인들에게는 "드라스 부이제(안녕하세요)" 하면 굉장히 좋아한다.

(김석진 기자)

'평신도 선교의 문' LMTC 개강



북한선교
꺼지지 않은 불씨

"탈북자들의 어려운 실정을 충현교인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북한 선교의 꺼지지 않은 불씨, '탈북자선교기도모임'을 인도하고 개신 교인제 장로님을 지난 주일 이른 아침 8시30분에서 만났다. 10여년 동안 북한 선교를 위해 일해 오신 조 장로님은 최근 북한선교가 해야 할 주요과제로 탈북자선교를 꼽았다. 기도모임 회원과 이변찬양대원들은 함께 매주 화요일 대방동 탈북자 수용소내 '평화교회'에서 탈북자들과 함께 기도드리며 교제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이들 탈북자들 중 세명은 우리 교회로 인도되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 '94년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체제붕괴와 '95년 이후 계속된 홍수로 많은 북한 주민들은 기근에 시달리다 탈북해 중국, 러시아, 미얀마, 베트남 그리고 몽골 등지에 퍼들며 살고 있으며 그 수가 30만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기아상태는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기아에 의한 사망을 21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국경선 주변에서 추위와 굶주림, 온몸이 상처투성인 상태로 쫓기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탈북자들은 믿음의 입문으로 성장되어 가고 있다.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모임을 가지게 된 동기에 대해 "한난은 연단, 연단은 인내,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는 진리대로 사신을 살아가며 믿음은 가지게 된 그들은 세계복음화와 민족복음화를 더 멀리 이끄는 길에 있다. 이들의 어려운 실정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경안이 풀무에서 연단인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자라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모임의 궁극적인 사역은 탈북자들이 국내 혹은 제3국에서의 의식주 해결과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우며 복음이 되면 북한에 선교사가 되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열 배를 들이보는 것이 믿음이며 그 열 배를 더 다가가시는 주님의 발자국으로 들은 충현교인들이 월 월 바라다 그 장로님의 간절한 소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염정섭 기자)

1974년 기독교 선교를 거부하는 국가가 33개국 정도였는데 비해 '89년 통계에는 86개국 그리고 지금은 선교대상국 거의 대부분이 선교사 입국을 제한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급속한 지구촌화 현상 및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확대로 인하여 물리적인 해외 진출은 쉬워졌지만 선교사들의 선교지 입국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급격히 변해 가는 선교지 상황은 단순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사역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다양한 신분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집금이 필요하다.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들어가기보다는 LMTC와 같은 평신도선교 훈련을 받는 추세다. 21C 선교-이제 평신도 선교사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1. LMTC 훈련목적

지역선교 훈련과 과정 (LMTC: Local Missionary Training Course)은 단기선교, 선교교회 등을 통해 헌신한 청년, 학생들이 계속적인 선교훈련을 받도록하여 전문적인 의료지원, 교육지원, 종족정착 등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선교후보생들을 보다 발굴하여 선교지에 투입하여 동역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LMTC 훈련 프로그램의 대상층

선교 일반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훈련을 2주간 실시함으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선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초기의 훈련은 주로 청년, 학생들을 모집, 실시하였으나 장로, 권사, 집사 등 평신도와 선교교회를 지향하는 목회

자와 사도들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후보생들도 훈련을 받고 있다. 또한 우리 교회 단기선교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교사지망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3. LMTC 훈련의 안

- 1) 훈련 / 국내훈련 24강, 해외훈련2-3주, 국내훈련 중 12일의 일박수련회를 실시
- 2) 정규과정 / 선교기본과정(1학기) 12주, 선교고급과정(2학기) 12주
- 3) 단기 집중과정 / 공휴일 또는 각 부서 수련회 기간 집중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4. 강사(인양사 포함) 및 훈련비

- 1) 강사 / 우리 교회 부목사 중 선교학 전공자 및 총회 전임강사로 구성되었으며, 인양강사는 대부분 현지인들로 구성되었다.
- 2) 훈련비 / 수강료 50,000원(1, 2학기 수강료 및 일박수련회비 포함), 해외훈련비

5. 단기 평신도선교사, 단기선교단 파송

- 1) 수료생 중에 현재 11명이 수단, 수단, 스리랑카, 우간다로 1년간 단기 평신도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 2)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단기선교 참가자들의 필수과정이며, 단기 평신도선교사 지원서를 발급, 육성한다.

6. 개강 일시, 장소

- 1) 1학기 / 3월4일(토) ~6월24일(토) 17:00
- 2학기 / 9월2일(토) ~12월9일(토) 17:00
- 2) 장소 / 베다니홀

(선교위원회)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여! '결혼 면허증'을 가집시다

조 칠 수(목사, 신혼가정부 지도)

우리 주위에는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도 없이 자동차를 함부로 몰다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동승한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신체와 재산에 큰 해를 끼치며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결혼은 운전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자세가 운전 배우는 사람의 자세만큼도 진지하지 못하며 결혼 준비와 혼전에 운전면허를 하는 시간만큼도 함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결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다고 한 가정사역자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이 비극으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로부터 결혼에 대한 어떤 교훈도 가르침도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생활에 대한 참다운 것을 배우지 못한 채 부모들의 지난날의 실수와 아픔을 되풀이하며 시행착오 속에 시간을 허송한 다음에야 비로소 배웁니다. 그리고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서 야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미 문제가 생기면 생기기 전보다 10배 이상 치유와 회복에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도 질병의 치료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예방의학에 있는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결혼 준비가 단순히 집과 가구와 전자제품과 예식과 신혼여행 준비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에 여러번은 무엇으로 채우며 세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일을 위해 저희 '신혼가정부'와 '결혼준비 교실'은 동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놓여준 전도를 다녀와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김 정 운(집사, 4교구)



지난 15일과 16일 양일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4교구 전도대를 불러주셨다. 자원하는 일꾼들을 남치도록 보내주셔서 미리 미리 준비하는 중에

"전도대를 보내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양평에 있는 양평성심교회를 만나게 해주셨다. 꼭 합당한 곳으로 지명받은 17명의 전도대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의 등불을 성심교회와 지역에 환하게 켜고 돌아왔다. 성심교회는 미자립 동촌교회였다. 아직 성도들의 믿음이 굳게 서지 않아 우리들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2일동안 성심교회 일꾼이 되어 섬기고, 복음전도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기에 하겠다. 목자의 음성들을 잘 알아 듣는 양치릴 죽도록 충성했다. 미용담도 함께 하여 더욱이 일을 빛나게 하였다. 축조전도를 그 교회 집사님과 함께해 뿌린 씨가 싹이 트리라 믿고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 한편, 소망이 있는 것은 그곳 집사님께서 믿음은 연약하지만 오대 전부터 삶을 통하여 본을 보여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부흥집회 기간 교회에는 차고 넘쳤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때마다 흑암에 사는 자들에게 복음의 씨가 옥토에 심어지기를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여 있는 모든의 심령을 치료하기 위해 모세와 아론, 훌의 모형들을 실제로 만들어 교회가 얼마나 영적 지도자를 도왔는지 알게 하는 모습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전도대원들과 온교회가 울며 기도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꾸며가는 도구가 되길 소원하며 늦은 밤 5대의 승용차가 불을 밝히며 서슬로 향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정화금' 성도를 소개합니다



친정어머니를 따라 다른 남매들은 다 교회에 다녔지만 자신은 사느 게 힘들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3년 전쯤부터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 이사는 곳의 구역에서 김신자전사님(새가족부교사)

의 권유로 새가족부에 등록하고 학습 수료하고 세례 받고서도 말씀 배우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워서 계속 새가족부에 나오신답니다. 성경암송도 잘하시고 새가족부의 행사가 참여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김상현' 성도를 소개합니다



직장 사장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형제는 여동생들을 다 시집보내고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노총각입니다. 직업이 토목기사이고 좋은 직장이고 거처도 다 마련해 놓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려는 일입니다.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형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될 좋은 배우자가 생기고 가족 복음화도 속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한옥성(새가족부 총원)



환영합니다

한결음

"충현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는 교회에 아주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부득불 섬기던 교회를 떠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혹 전에 교회에 다니다가 당분간 쉬었다가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어떤 형편으로 인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이유는 상관없이 충현교회의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인사의 말씀은 제가 새가족부에서 약 12년간 봉사할 때에 환영인사로 사용하던 말씀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위의 인사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5월에 거처서 여러분과 지상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은 아는 사람의 전도로 또는 누구 때문에 혹은 끈질긴 권유에 못이겨 억지로 나오셨는지 아니면 호기심에 구경하러 오셨는지 심한 고민 끝에 괴로움을 달래려고 나오셨는지, 사연은 어떠하든지간에 마지막 마음의 결정을 자기자신 한 것 같지만 바로 그 마음을 주권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불러주셔서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기쁨에 나오셨으니 뭐가 된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도 꾸준히 잘 나오시면 차츰 알게 될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일에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명선 은복전도사)

소만평



글·그림/장민

목회자 영성개발을 위한 제3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

"영성의 회복 - 성경적 영성과 복음의 능력"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심자기의 은총이 우리를 사로잡아도 합니다

알렌 헤리스 목사 강의 요약
"영적 지도력의 원리"

이 준 경(목사, 3교구 지도)



제1장, 교회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베소서)에베소서자의 말씀은 어떤 한 교회를 특별히 의식하고 쓰여진 서신이기보다는 보편적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헤리스 목사는 에베소서의 요절을 엮어두고 말하고 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다. 삶의 자율의 한 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기쁨함, 자녀됨, 성령의 임적이 있다. 그러므로 삶의 자율의 반대편에는 합당하게 의로운 삶, 기쁨한 삶, 자녀된 삶, 성령충만한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지도자의 위치는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에게 복사하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아가는 것이다. 알렌 헤리스 목사가 섬기는 교회에는 한 명의 사역자와 599명의 평신도가 있기보다는 600명의 사역자가 함께 교회를 세우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성도들을 세우아가는 방향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또한 예수그리스도의 인격을 삶 속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다.

제2장, 리더의 헌신적인 삶: 느헤미야 1장의 원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1) 리더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분명한 인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2)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서 가장 많이 회개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특별히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은혜만을 강조하는 "헌신적인 작용자"나 자신의 죄만을 강조하는 "소망없는 무정자"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면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삶, 그래서 살아갈수록 심자가 거치는 것을 세습할 수 있어야 한다. 3) 죄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써 동기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율법적인 삶과 복음적인 삶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4) 은혜를 아는 자들은 더욱 더 경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자격이 있다. 간구와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찬양하는 기도가 더욱 요청된다. 5)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리더의 포괄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역교회에 복음의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어야 한다. 6)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믿음을 가져야 하며 기도하는 자여야 한다.

제3장, 장로그룹의 훈련과 리더
장로의 중요한 기능은 감독하고 지지하는 것과 함께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라고 지지하는 순대령 또는 군세의 전투의 현장에서 가장 앞서서 배를 들고 군사를 보호하는 그런 자리가 장로의 자리인 것이다.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잘 다스리는 자로서(장로) 잘 가르치는 자로서(목사) 동일한 장로로서의 동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장로를 신발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지도자로서 합당한 경건생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회개의 삶, 가족들과의 관계, 사역에의 헌신, 신뢰하는 삶을 통하여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헤리스 목사는 특히 본인의 교회의 당회의 의사결정을 '만장일치'를 말하면서 그만큼 일의 처리 자체보다도 장로들 사이의 관계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

제4장,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리더십의 교훈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그의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만난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알아야 했던 사실은 그가 군대장관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따르며 전쟁을 수행하여야 하는 자라는 사실이다.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승리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교만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야 하며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철저히 주님만을 의뢰하는 열정이 필요한 것이다.

스티브 윌러스 목사 강의 요약 "복음의 변혁시키는 능력"

김 동 하(목사, 대학부 지도)



스티브 윌러스의 '복음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강의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삶에 대한 각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을 제시한 것이었다. 우선 그는 복음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잘못된 태도에 대해 세가지 것을 제시하였다. 첫번째로 명목주의로 교리와 신학적 지식만을 가지고 있을 뿐 마음의 감동이 없는 사람을 말하였다. 두번째는 수동주의로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시도하거나 책임지려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덕주의를 말하였다.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그가 복음의 두 가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인간에게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첫번째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의 문제이고, 두번째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죄악의 문제와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복음은 동시에 해결해 준다고 하였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정의라는 것이다. 정의란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죄를 지은 대가를 처리하는 죄책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윌러스 목사는 계속하여서 복음은 칭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 점을 더 나아갔다. 복음에는 칭의를 통하여 죄의 문제와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소식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칭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양자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복음에 대해 가르칠 때 "칭의"뿐 아니라 "양자됨"에 대하여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바로 코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복음은 인간을 의롭다할 뿐 아니라 성화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소식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성령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복음이 인간에게 새로운 지위와 본성을 약속해 준다고 했다. 그는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죄인의 지위에서 칭의를 통한 양자됨의 지위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한 나쁜 본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쁜 본성은 거듭남과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본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죄의 영향력과 유혹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능력을 베푸시는 이가 성령이시라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성령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을 성화시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회개에 대하여 말하였다. 진정한 회개란 나쁜 것을 하였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외적인 습관을 고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진정한 성경적인 회개란 마음의 우상숭배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우상이란 존재를 인본주의, 동성, 권력, 쾌락과 같은 것들이며, 분노와 두려움, 근심, 욕정, 질투, 자기 중상과 같은 감정들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우상 숭배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나 사람을 통해 행복과 성취감을 찾는 것까지 포함시켰다. 그러므로 우선 회개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들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위하여 회개 본성을 도말하라고 하였다. 회개 미루하고 죄의 권세를 풀어내는 급진적인 행동 또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였다.

윌러스 목사는 회개의 문제에서 믿음의 문제도 나아갔다. 영적인 마음가짐을 다음과 같이 가차 없이 말하였다. 감동주의와 교리주의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였다. 열광만 있고 현실에 대한 자각이 없거나, 반대로 지식은 있으나 열광이 사라진 것 모두 옳지 않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지식이 가슴의 열정으로 바뀌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위해서 우선 마음과 생각의 초점을 언제나 복음에 맞추라고 했다. 또한 공동체를 통하여 훈련을 받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인 훈련을 성실하게 하라고 했다. 그는 겸손을 으뜸으로 심자가 경험하고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라고 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순종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리스도께 순종이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모든 족속에게 알리려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시며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순교를 축복하는 것이다. 그는 순교는 제법 전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오직 경배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복음 전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체물 소식

영아부

겨울성경학교 -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

교회와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과 지혜로 양육하기 위하여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첫째날, 보리떡 다섯개로 오천명이 배불리 먹고 열두바구니가 남았음을 알고 영으로나 육으로 우리에게 든든하게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을 배웠다. 학부도 특강으로는 정감신 목사님을 모셨다. 그간 세 자녀를 키우는데 즐거웠음도 힘든 때를 슬직히 말씀하시며 자녀를 통하여 감사함을 깊이 알고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 무엇인지 감사의 일기를 쓰기를 권하셨다. 둘째날, 사트뵈 아이무니가 행한 말씀 주시며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셨다. 성경학교 마지막 순서로 안영국 '보리떡 다섯개 물고기 두마리'로 겨울 성경학교를 감사히 마쳤다. 이 겨울이 지나면 우리 아기를 믿는 예수님의 사랑을 먹으며 씩씩 자랄 것이다. 송해경 통신원

유년부

야 겨울성경학교다

신나고 재미있는 겨울성경학교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있어요. '바른 예배를 드리기'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밥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와 손잡고 즐거운 성경학교로 오세요. 아릅답고 즐거운 추억을 유년부 겨울성경학교에서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정지혜 통신원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시작

드디어 내일로 다가온 겨울성경학교, 특별한 시간이 있기에 기대어지는 겨울성경학교를 생각하면 마음이 설렌다. 눈가리고 장대포 넘기, 풍선을 발로 차며 아이들리기, 보물지도기를 보며 보물찾기, 목걸이장식만들기 등이 특별활동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반성경공부시간에 진행될 내용들이다. 부디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를 바라며, 학부자들의 관심을 기대해 본다. 초등부의 이미지 어린이의 백행병이 잘 치료되기를 바라며 3월 12일 작은 정성을 모으려고 한다. 성형록 통신원

청년2부

겨울순회회 임박

청년 2부 겨울순회회가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열린다. '믿음의 신한 싸움'을 싸우는 청년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순회회에는 30대 청년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 영성함양과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된다. 순회회에는 청년 2부 지도 김진식 목사를 주강사로 새벽기도회와 저녁부흥회를 개최한다. 김진식 목사는 전체 주제 아래 '연약 갱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라' '하나님됨을 위해' '다시 기뻐하라' 등을 제목으로 한 말씀으로 영적인 도전을 던진다. 또 특강을 맡은 정감신 목사는 '영적전쟁'이란 제목으로 인생의 전환기를 사는 30대 청년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정경하게 할 계획이다. 순회회 출발은 29일 오후 3시 교회 본당 앞에서 한다. 청년2부 통신원

나를 바꾼 한마디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김은 경(청년1부 교사)

지난날 외모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나의 아픈 상처들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라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장 7절),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자리잡고 있었던 상처들이 치유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는 단정으로 보여줬던 부분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외모보다는 나의 내면을 주님 보시기에 종이 할수록 늘 조심하며, 하늘의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

요즘같이 시대가 급속하게 변하고 실속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나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뭘수 있으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가색속에 감추어진 진짜를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역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고 있어서 자꾸만 세상의 가치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지만 나의 외모로 인한 상처들과 바꾸어버린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준다. 이제 더 이상 나의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설 때 주눅들거나 창피해하지 않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귀하고 좋은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날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 나는 세상에 외지고 싶다. 우리 눈에 덮여있었던 비늘을 떼어내고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한결 더 아름다울 것이며, 주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3교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자

교구모임이 지난 19일 남한산성에서 있었다. 이준경 목사님은 교후12:14-15말씀으로 한영훈, 한영훈을 부모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교구 집회의 황성화를 위해 모든 교구 식구가 참여하도록 권한다. 금요집회에 많이 참석하여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당부하셨다. 또한 남성구 역과 요한전도회를 부흥·발전·성장의 역사가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하셨다. 교구 장로님의 말씀 따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다짐했다.

백미경 통신원

에바다부

수화교실

에바다부에서는 새해 2000년도 맞이하여 사랑의 화해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화교실을 개강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농이인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가까이하기에 너무 무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화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가 수있으며 친숙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수화로 에바다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제1차 수화교실 개강

기간: 3월 5일 - 7월 16일

매주일 오후 3시 - 4:30

장소: 에바다부 예배실 및 교육관

문의: 에바다부 교사실(교한416)

충현 자성교회학교
(紙上敎育學校)

은동장

새가

죽 부

는 1월의

기도로 간

중문소식 대

회에 이어 지

난 13일과 20일

'성경감동대학'을

가졌다. 새가족들은 한

달동안 요한복음 3장16절을 비롯해 10가지 이상의 성경구절들을 외워 대회에 참가-눈을 감거나 한 손을 감시하여 암송하다가 막힐 때면 간편책은 뜻머리를 급격극적, 이내 다시 긴장하여 암송. 한 새신자는 성경구절을 외우면서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이 말씀들의 일상이 자신의 신앙고백이 되었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전도

위원회

주관으로 남년전도회 119개 지회 임원 영성훈련이 지난 15일 저녁 갈밀리출에서 있었다. 예배와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주제로 담담목사님의 강의와 기도회가 있었는데, 전도지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담하게 복음을 전할 것이 특히 강조되었다.

청년

1부는 주

중 프로그램 중 하나로 '최요성경대학'을 열어 특정 주제를 선정, 초빙된 강사로부터 5회 강의를 듣는다. 지난 15일부터는 '경건의 시간' 강좌가 시작되었는데 발이 길도록 강의들 강하는 젊은이들의 열기가 두터워 감동과 관련하여 과제도 부과되고 간단한 시험도 있을 예정이라는 강사의 계획 발표에 수강자들은 일순 긴장하기도,

교회소식 / 목·장집합

알림

1. 제1차 학습 세례식이 오늘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2. 제2차 성찬식이 다음주일(3월 5일), I, II, III, IV, V 부 예배에 있습니다.
3. 만물환, 물새의 기타 대반도집 만물환 연주에서는 만물환과 물새의 기타 대반을 모실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마음을 환영합니다.
4. 문의: 아란은 김(393-0343)

- 장소: 교육관 212호
- 8. 전사 임원전담기도회
- 일시: 3월 1일(수) 12:00
- 장소: 사랑부실

남반전도회

1. 바울 5장의 열매회
- 일시: 3월 2일(목) 19:00
- 장소: 교육관 212호
2. 바울 14장의 열매회
- 일시: 오늘 교구모임후
- 장소: 교육관 206호
3. 바울 17장의 열매회
- 일시: 오늘 교구모임후
- 장소: 교구모임장소
4. 베드로 16장의 열매회
- 일시: 오늘 교구모임후
- 장소: 사랑부실
5. 로마 9장의 열매회
- 일시: 오늘 15:00
- 장소: 복자전지회2층
6. 요한 17장의 열매회
- 일시: 3월 4일(토) 18:00
- 장소: 한석전집대
7. 예수 10장의 열매회
- 일시: 오늘 교구모임후
- 장소: 교구모임장소
8. 예수 16장의 열매회
- 일시: 오늘 15:00
- 장소: 사랑부실
9. 마태 23장의 열매회
- 일시: 3월 2일(목) 11:00
- 장소: 사랑부실
10. 요한 3장의 열매회
- 일시: 3월 5일(토) 15:30
- 장소: 3월 5일(토) 11:00

- 장소: 교육관 109호

별세

1. 진현희 성도
- (영결식 성도 남편, 노영자 성도 부, 112구 신안) / 18일 별세, 21일 장례

결혼

1. 당영성 군(공주군 권사, 이윤형 권사의 아들)과 유혜영 양(수남 대안교회, 김경희 장사의 딸 2대교구) / 20일(토) 12:30 장례리
2. 리동호 군(과거군, 김순수 장사의 아들)과 한현정 양(한양대 김 시, 이영희 장사의 딸 2대교구) / 5월 1일(토) 13:00 장례리
3. 김영희 군(강남구 권사, 진경애 장사의 아들 162구)과 김희영 양(김복동 성도, 남경자 성도의 딸 52구) / 3월 4일(토) 15:00 복자전
4. 김준호 군(강남구 권사, 김경자 장사의 아들)과 김유정 양(김영구 장사, 함자국 장사의 딸, 52구) / 3월 4일(토) 14:00
5. 이영일 군(강남구 권사, 이영희 장사의 아들 192구)과 손순성 양(손순경 씨의 딸 192구) / 3월 4일(토) 13:00 장례리

3월 주일 수요일 기도망

월	일	I	II	III	IV	V	찬양	성경	수요일(권사)
3	5	이영성	김혜영	이훈	오영현	김영호	장봉순	최구	김영희
	12	한순환	이영수	이윤형	황민정	김영호	박영선	박영선	장영숙
	19	남영수	조진배	장봉순	김영희	김민정	김호진	김영희	김영수
	26	김정배	김영수	손경수	윤성철	한영숙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이마음 전도의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3개월(3월 31일 ~ 3월 31일까지)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
- 교육장소: 교회내
- 비: 용/실비
- 교육생명: 김순성 권사 514-0542

충원 유아원 원아모집

어린이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충원 유아원(어린이집)에서 원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교육으로서 연령별 3학급을 중일반과 반일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연령: 3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 모든 어린이
교육 상담: 554-7054 (유아원)

*전화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충원 중보의장

1. 김성관 위임목사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께 서 능하게 쓰시는 말씀의 종으로 온전히 불꽃이 되소서.
2. 김창민 원로목사와 모든 교역자 및 당회원과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모든 청지기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온전 교회를 힘써 세워가게 하소서.
3. 겨울 단기 선교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대원들을 친히 사용하여 주소서.
4. 2000년 겨울 수련회 및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천국일본을 더욱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5. 2000년 전반기 성경연구원의 각과정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운동을 허락 하소서.
6. 3월 5일 가행되는 성찬식이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7.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시고 북한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소서.

세·가·족·을·함·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22	김미선	1	청년2부		234	남영호	14	예수		246	정희우	8	대학부	
223	김홍	1	청년2부	정규호(1)	235	조미진	3	청년2부		247	조미진	19	대학부	
224	정영표	1	베드로	정규호(1)	236	윤영진	15	청년2부		248	장영진	19	대학부	이진규(7)
225	이지연	3	청년1부		237	이영화	17	청년1부		249	정희호	19	청년1부	안명철(15)
226	김희정	3	청년2부		238	류지연	19	고등부		250	박정규	19	청년1부	김영애(1)
227	류연형	6	소양부		239	권혁민	19	중등부		251	전지영	19	청년1부	
228	윤정순	6	소양부		240	김정부	19	중등부		252	김지정	19	청년1부	
229	안병호	6	청년2부	김학식(6)	241	정종수	19	대학부	이주영(1)	253	심소라	19	청년1부	
230	박순숙	6	청년2부	김학식(6)	242	정종수	19	대학부	민상균(19)	254	심미라	19	청년1부	
231	기연경	7	고등부	박정규(7)	243	이성훈	19	대학부	장정재(3)	255	이상우	19	청년2부	
232	최유미	8	청년2부	박복동(8)	244	이영훈	19	대학부						
233	김순화	9	예수	김중국(9)	245	정영진	19	대학부						

충원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30호 제독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장집합

"오래 사십시오"

이종대(목사, 6교구 지도)



중에 교통사고로 수개월간 입원하였다. 그 책임은 전가당하게 조마조마하며 기도하던 차차부에게는 교통사고로 인한 더 큰 짐 따위는 없었고, 오히려 '자부의 말대로 하시라' 후도 예배를 드렸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으리라 라는 자책이 할머니에게 생기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도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오래 사십시오" 인사하는 것이 좋고, '예수님 믿을 때까지 오래 살게 하소서' 기도하게 한다. 91세에 차차부에게 제사를 강요하였다. 울며 하나같이 기도하며 준비한 차차부는 공손히 그러나 확연하게 거절하였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세로 임하는 차차부에게 필박도 힘을 얻지 못하는 할머니는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귀가

성·기·는·분·들

원로목사 김창민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로: 윤명식, 김의철, 조진근, 김은호, 이종성, 김희수, 이종대, 박정현, 김동석, 김준환, 전영훈, 이승수, 정갑선, 정현민, 김문환, 조현수, 이종수, 차명준, 김병태, 김진식, 권상현, 서자진, 이종학, 정해성, 이준경, 박기인, 여영기, 류병희
- 교육목사: 엄연일, 장종호, 엄필성, 윤영택, 박영호, 김철모, 김은영, 박영호, 김철모, 김은영, 박영호, 김철모, 김은영, 박영호
- 찬양감독: 강기영, 김도순, 한승일, 정연희, 현정남, 장영자, 임태두, 김정자, 배옥인, 최희재, 손미희, 송창지, 신동자, 윤운옥, 오영숙, 오인숙, 김순옥, 한영준, 김영숙, 김복순, 김연식, 김복순
- 교정전도사: 박영태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주례: 이종대 목사)	본당
주말 예배	IV 오전 10:00 (주례: 이종대 목사)	본당
	V 오전 3:00 (주례: 이종대 목사)	본당
	VI 오전 5:00 (주례: 이종대 목사)	본당
영양 예배	9:00 a.m.	북촌교회(Chonil Church)
영양 예배	12:00 p.m.	본당
영양 예배	1:00 p.m.	본당
영양 예배	2:00 p.m.	본당
영양 예배	3:00 p.m.	본당